이명박 상승세 박근혜 약보합 고 건 하락세

막오른 대선경쟁…부동의 3강 구도

李 수도권, 朴 영남권, 高 호남권 강세

與 국민경선제 고 건 영입때 가장 유리

대선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고건 전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행보가 바쁘다. 고 전 총리가 2일 경남 통영에서 진의장 통영시장으로 부터 통영명예시민증을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벨기에, 독일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서울 동작동 지하철 9호선 현장을 방문했다.〈위로부터〉 /연합뉴스

차기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여야 예비주자들의 경선도전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고건 전 국무총리가 일단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강 중에서는 서울시장에서 물러나 행보 반경이 크게 넓어진 이 전 시장이 '상승세' 속에서 선두로 치고 나갔고, 한나라당 당대표 프리미엄이 소멸된 박 전 대표가 '약보합세', 정치권 외곽에서 계속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고 전 총리가 '하락세'를 각각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지역적으로는 이 전 시장은 수도권, 박 전 대표는 영남권, 고 전 총리는 호남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3강 후보간 우열을 점칠 수 없는 초박빙의 상태여서 충청권 표심의 향배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가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25.1%로 1위를 달렸고 박 전 대표(20.5%)와 고 전 총리(18.9%)가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그 다음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3.9%),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3.4%), 권영길 민노당 의원(1.6%),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1.5%) 등의 순이었다.

동아일보가 코리아리서치센터(KRC)와 공동으로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전 시장이 24%로 1위에 올랐고 박 전 대표(22%)와 고 전 총리(21.2%)는 각각 2, 3위에 랭크됐다.

다음으로는 손 전 지사(4.5%), 강금실 전 법무장관(3.5%), 정 전 의장(2.3%), 김 의장(2.1%) 등의 순으로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 특히 민심탐방 100일 대장정을 벌이고 있는 손 전 지사가 4% 안팎의 지지율로 처음으로 3강 후보 다음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9일 이뤄진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가 나란히 27%로 공동 1위를 기록했고 고 전 총리는 21%로 3위에 그쳤다. 정 전 의장은 4%로 4위, 손 전 지사는 3%로 5위, 김 의장은 2%로 6위에 각각 머물렀다.

3강 후보의 지역별 지지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전 시장은 수도권(조선 29.4%, 동아 서울 기준 35.7%) 박 전 대표는 영남권(조선 28.8%, 동아 부산.경남 기준 30.4%), 고 전 총리는 호남권(조선 41.6%, 동아 39.3%)에서 각각 선두를 달렸다. 이 전 시장은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권 지지율이 34.5%로 박 전 대표(32.2%)를 근소하게 리드해 두 주자간 영남권 다툼이 치열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여당이 100% 국민참여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할 경우, 현 구도에서는 고 전 총리가 입당해 경선에 나선다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오픈 프라이머리 하에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 전 총리가 24.5%의 지지율을 보여 정 전 의장(7.5%)과 김 의장(4.2%)을 크게 앞섰다. 다만 열린우리당 지지층만 보면 고 전 총리(23.8%)와 정 전 의장(16.3%) 간의 격차가 7.5% 포인트 내로 좁혀져 고 전 총리 입장에서는 비(非)여당 지지층의 투표 참여율이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줄서기 부작용" VS "지지율 높인다"

한나라 대권경쟁 점화 찬반 논란

박근혜 전대표와 이명박 전서울시장의 1일 대선후보 경선출마 선언을 계기로 당내 대권경쟁이 조기 점화되면서 한나라당이 술렁이고 있다.

조기 대권경쟁 촉발로 정기국회 회기 중임에도 '의원 줄세우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와 어차피 물밑에서 진행돼 온 대권경쟁인 만큼 공론화를 계기로 여당의 정권개편론 화두를 잠재우며 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기 대권경쟁에 당이 휩쓸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 언급은 대권경쟁 조기 과열의 부작용을 우려해 올해까지는 국회 활동에 집중하고, 대권경쟁은 내년에 시작돼도 늦지 않다는 강재섭 대표의 발언과 맥이 닿아있다.

반면 홍준표 의원은 "당내 경선구도는 오래 전에 사실상 시작됐고,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이 대권후보로서 쌍끌이 지지로 당 지지율을 올려온 만큼 경선참여 선언을 조기과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의 한 초선의원은 "당헌상 내년 4월이 (예비후보) 등록인데 얼마 남지 않았다. 전국 시도당 단위로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게 맞다. 이 인물들을 점검하면서 가야 한다"며 경선참여 선언을 긍정 평가했다. /임동욱기자 tuim@

대통령 선호도 손학규 1위

편집기자 설문…당선 가능성은 이명박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윤곤)가 창립 42주년을 맞아 전국 54개 회원사 편집기자 1천여명을 상대로 실시해 2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46개사 668명 응답)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5.2%가 손학규 전 지사라고 답했다. 당선 확률이 가장 높은 인물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47.1%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F1 대회 유치 조인 향후 과제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2010년 'F1(포뮬러 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가 2일 공식 발표됐다. 이로써 그동안 각종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던 J프로젝트의 신호탄이 올랐다.

그러나 초대형 국제행사인 F1대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행·재정 지원 특별법 제정 급선무

경주장 건설 2,300억 확보도 관건

◇J프로젝트에 추동력＝전남도는 F1 대회를 J프로젝트의 '견인차'로 여기고 있다. 세계적인 모터스포츠의 대명사인 F1대회가 국제 규모의 J프로젝트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상징물이 되도록 한다는 게 일차 목적이다. 여기에다 F1대회 참관 인파를 J프로젝트 계획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변 관광레저시설에 접목시키는 '집객'(集客)효과 또한 중요한 노림수다.

◇F1특별법 제정＝F1대회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재정 지원의 바탕이 되는 특별법 제정이 최우선 과제다. 당초 전남도는 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당 등 3당 합의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 특별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세부사항 논의가 늦어져 추석 이후로 상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이처럼 특별법 제정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경차'(競車) 조항 포함 여부 때문이다. 전남도는 F1대회 수익구조 개선 방안으로 경차를 유치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바다이야기 사태'에 따른 비판적인 시각을 우려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도는 이달 중 경차조항 포함 법안을 상정할 지와, 경차조항을 제외한 채 상정 후 나중에 따로 경차법만 추진할지를 추석 이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미 F1대회 자체만으로는 수익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용역 보고가 나와있는만큼 경차조항 포함 여부는 앞으로 F1대회 운영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최시기 준수와 사후활용＝전남도는 J프로젝트 사업지구인 영암군 일대에 150만평 규모의 F1 경주장을 2007년 착공해 2009년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전남도가 2010년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더라도 360억여원의 개최권료를 대회 주관기구인 FOM에 지불한다는 신용장을 이미 발급해준 만큼 기간 내에 경주장을 건설해 첫 대회를 열어야 하는 도의 압박감은 매우 크다. 전액 민간자본으로 충당해야할 2천3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경주장 건설비 확보도 관건이다.

이와함께 F1 대회와 각종 부대행사 등으로 경주장을 연 200일 이상 활용해야 상업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돼 면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

/박치경기자 unipark@

"한국 F1 대회 시장 가능성 무한"

에클레스톤 FOM 회장

"한국이 아직 모터스포츠시장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높이 샀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스인 포뮬러 원(F1) 대회를 주관하는 F1 매니지먼트(FOM)사 대표인 버니 에클레스톤 회장은 7~8개국이 경합을 벌인 F1 그랑프리 신규대회 개최지를 한국으로 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2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에클레스톤 회장은 "2010년부터 열릴 한국대회의 성공을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1930년생으로 올해 만 76세인 그는 1951년에 500cc급 포뮬러 3 대회에 카레이서로 출전했던 이 분야의 선구자 격이다.

국제자동차연맹(FIA) 부회장도 맡고 있는 그는 무려 2110년까지 향후 100년 이상 F1 그랑프리 운영권을 갖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